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 문 방 송 학 과 석 사 학 위 논 문

재한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
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22 년 8 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DING MEIJUN

신 문 방 송 학 과 석 사 학 위 논 문

재한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
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오 창 호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DING MEIJUN

DING MEIJUN 의 신문방송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 년 8 월 26 일



위 원 장	문학박사	김 정 규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오 창 호 (인)
위 원	미디어학박사	김 정 환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II. 이론적 배경	5
1. SNS에 관한 선행연구	5
가. SNS의 정의와 사용현황	5
나. 유학생과 SNS	15
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17
가. 문화적응의 개념	17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	19
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성요소	20
3. 문화계발효과 이론	22
가. 문화계발효과 이론의 개념	22
나. 문화계발효과 이론과 SNS	23
4. 자기효능감	24
5. 사회적 지지	26
6. 각 변인과의 관계	28
가. 유학생의 SNS 사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28
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30

다. SNS 의 사용,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31
III. 연구방법	35
1. 연구문제	35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7
3. 연구도구	38
4. 분석방법	41
IV. 연구결과	42
1. 인구통계학적특성	42
2.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44
3. 구조모형 분석	45
4. 매개효과 검증	49
5. 연구문제의 검증요약	55
V. 결론 및 논의	56
1. 결과 요약 및 논의	56
2. 연구의 한계점	59

창 고 문 헌

<부 록>

〈표 차례〉

표 1 중국 SNS 의 플랫폼	13
표 2 중국 SNS 대표적인 플랫폼의 특징	14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40
표 4 인구통계학적특성	43
표 5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44
표 6 모형의 적합도 지수	45
표 7 경로분석 결과	48
표 8 SNS 사용시간과 자각된 차별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50
표 9 SNS 사용시간과 향수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52
표 10 SNS 사용시간과 문화적 충격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54
표 11 연구문제의 검증요약	55

<그림 차례>

그림 1 한국 SNS 이용률	9
그림 2 한국 주평균 SNS 이용빈도,이용시간	10
그림 3 한국 주이용 SNS 서비스	10
그림 4 성 연령별 주이용 SNS 서비스	11
그림 5 한국 SNS 이용 이유	12
그림 6 중국 쇼트 동영상 이용자 규모 및 이용률	15
그림 7 연구모형	36
그림 8 구조모형	46
그림 9 자각된 차별감의 다중매개효과의 경로분석	50
그림 10 향수병의 다중매개효과의 경로분석	52
그림 11 문화적 충격의 다중매개효과의 경로분석	54

<Abstract>

The Effects of SNS Use Time on Acculturation Stress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Us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arameters

MEIJUN DI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SNS use on overseas students who leave their hometowns in Busan.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f foreign students' SNS use time on the secondary bearers of cultural adaptation pressure, such as self-discrimination, homesickness and cultural attack, and the media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Methods 239 people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nd accepted questionnaire survey were investigat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pril 1, 2022 to April 12, 2022, with a total of 12 days. The collected data were collected by SPSS26.0 and AMOS 26.0 statistical procedu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firm the correlation among debaters,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SNS use time, self-discrimination, homesicknes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s. SNS use time of foreign students is negatively

(-) correlated with self-discrimination and homesickness, and positively (+)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Secondly,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SNS use time on cultural adaptation stress, whether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play an intermediary role shows that social support is positively (+) related to self-efficacy. In the influence of SNS use time on conscious discrimination, the media effect of social support appears. Third, SNS use time has the media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 discrimination and homesickness. Fourthly,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show media effects in tur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difference and nostalgia of SNS use time consciousness.

Therefore, based on these studies, SNS use also has positive significance of cognitive affective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promotion and SNS, which means that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become important factors to relieve the pressure of cultural adaptation. I think that using SN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ollege students' cultural adaptation projects can help relieve the pressure of cultural adapta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and supplementary data for the follow-up study of SNS and cultural adaptation pressure, and then help to strengthen the positive function of SN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현대화된 교통시스템과 통신시스템의 발전으로 세계화는 세계 각 분야에서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 간의 교류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한·중 상호 교류에 있어서도,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까지 외국인 유학생은 167,84명에 이르고, 그중 중국인 유학생이 51,201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30.5%를 차지하여 국적별 유학생 비율에서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새로운 환경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는 국제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와 개인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적응 과정으로, 다문화 교류에 따른 가치관, 태도, 행동이 바뀌는 과정이다. 보통 체류자들은 언론 전파와 지역사회 등 두 가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길을 갖고 있다. 미디어 전파는 TV, 신문, 그리고 오늘날 성행하는 소셜 미디어가 포함된다. 지역사회에는 각종 학교 및 사회단체, 종교단체, 인종단체 등이 속해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적응은 매우 힘든 과정으로 다른 적응에 비해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개인이나 단체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한 후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Williams 1991).

한국에 온 유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그들의 심리 건강 문제도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학생들이 다국적으로 혹은 다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에 따라 다른 문화,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전환, 어떠한 문제라도 타향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유학생마다 이역 문화에서의 적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고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의 대인관계 문제, 언어 문제(지역별 사투리 문제), 낯선 생활 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등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해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 우울, 외로움, 향수병, 지각에 대한 차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유발됐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유학 생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문신일, 료가, 이현주, 김기태, 2021).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은 사람들이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컴퓨터 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미디어 심리 공간의 형성과 공유에 영향을 준다(나은영, 2015). 특히 지인과 공간적 거리가 있는 학생들은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심리적 공간에 의존해 정보를 추구하거나 향수병을 달랜다(김진영, 2003). 홈즈(Hormes, 2014)는 인터넷 사용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 우울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고 보았으며, SNS 역시 부정적 사고, 감정을 분산시키고 불안을 경감시킨다고 하였다. 배진숙(2018)의 연구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디어는 문화 채널로서 문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응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에게 인터넷은 여러모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민수, 2019). 해외 유학생들은 미디어에 의존해 정보를 얻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김진영, 2003). 왕메와 나미수(2015)는 재한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과 정을 나눴다고 보고했다. 감각적 웹 활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추구, 인간관계 구축 및 유지에 대한 웹 활용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장권량(2009)의 연구는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 중 학업 요구의 억압, 언어나 문화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을 겪으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매체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동통신 기술과 지능형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NS 이용률도 높아진다. 유학생들이 SNS를 통해 향수병을 달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시간과 공간의 제약, 접근의 용이성, 사용 편의성, 저렴한 비용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소통의 가능성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과정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옵션으로 볼 수 있다.

SNS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SNS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기존 오프라인에 익숙한 관계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 처음 연결되는 관계일 수도 있다. 많은 유학생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유학생이 타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것,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은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크다(임지혜, 최지혜 2009; 이현숙, 200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감지한 중요한 타인을 통해 자신이 받고 있다고 믿고 보살핌과 보살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Procidano & Heller, 1983), 사랑, 인정, 정보, 물질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적극적 자원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Caplan, 1974; Cohen & Hoberman, 1983).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켜 우울과 불안을 감소

시키고 심리적·사회적응의 문제를 완화시켜 탄력성과 적응유연성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승경, 양계민, 2012; 김은경 2016; 박순희, 2009).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자기조절의 중요한 요소로서, 유학생의 심리 및 감정상태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Litt(1988)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의 증가가 다중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행한 결과를 개선하고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증상은 낮아지고(구재선,2001; 신현미, 2000; 전윤정,2004), 불안 감소에 영향을 주며(엄외순,2003)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적게 받았고, 이탈행동의 빈도가 낮아졌다(신현미,2000; 이기순,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량적 조사를 통하여 재한 중국 유학생들이 쉽게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SNS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SNS의 사용이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같은 집단적 수준의 개념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수준의 개념이 스트레스의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유학생 인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들을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수용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SNS에 관한 선행연구

가. SNS의 정의와 사용현황

“Social Network(이하, 소셜네트워크) 이론” 이론은 1954년 영국의 사회학자 반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가족, 친구, 지인 등 집단에서 형성되는 사회구조의 기본 개념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람간의 전통적인 소통과 사회적 유대도 온라인상에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생산할 수 있다(Rau·Ding, 2008). 과거에는 소셜 네트워크 형성이 주로 대면하여 구축된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췄으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 이후 점차 소셜 네트워크의 초점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및 커뮤니케이션에 구축된 가상 사회 등의 서비스로 옮겨갔다(Kang et al, 2008).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친구나 동료, 다른 지인들과 대인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대인 관계망을 형성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말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한국인터넷진흥원(2019)에 따르면 SNS를 이용하는 개인의 행동에는 자신의 콘텐츠 창출을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물론 타인이 올린 콘텐츠를 단순히 읽고 관찰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한 SNS를 통해 취미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이 짧은 글을 올려 정보를 공유하고 우정을 쌓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즉, SNS는 개인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SNS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와 소통의 기능이 강화됐고, 소통을 형성하는 소셜네트워크 내 담론구조가 부각됐다. 동시에, SNS의 확산과 함께,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효율적으로 나뉘게 되었다. 즉, 웹 2.0은 새로운 인터넷 기술변수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SNS의 급격한 발전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웹 1.0이 단순히 웹을 탐색하고 정보를 얻는데 그쳤던 것에 비해 웹 2.0은 더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웹 2.0은 사람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소셜 서비스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관계를 온라인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서우중·원옥연·홍진원, 2010).

SNS는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소셜 서비스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물리적 공간과 제한된 시간을 사용하며 생산된 정보와 특정 문화, 언어를 통해 개인의 단어와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다. SNS는 국가를 초월하여 가상 공간에서 인간적인 연결과 문화적 향유를 형성하는 매체이다. 또한, SNS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또는 대화 상대와 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의미한다. 콘텐츠 유형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SNS는 사용자 개인이 시스템 내에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공유 중인 네트워크와 타인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관계를 맺는 온라인 기반 서비스로 정의되며, 정보의 제공, 관계 구축 및 유지, 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용자의 관계망을 보거나 연결하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타인이 만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Boyd & Ellison, 2007).

SNS 를 통해 우리는 개개인의 위치에서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사용자 간 네트워크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SNS 이용 빈도의 충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황재선, 2008).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웹 프레임워크와 플랫폼이고 SNS 사용자는 이를 사용함으로써 타인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오승석, 2010).

SNS 의 가장 큰 기능적 특성은 커뮤니케이션이며 기존 오프라인 의사소통의 역할을 강화 및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이호영 김희연 오주현 배영, 2012a). 인간은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할 때 현재의 환경과 서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 인간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며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기 때문이다(강현욱, 2013). 또한 SNS 를 사용하면서 외로움이 낮아지기도 하며(인터넷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 2018)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Keum H.J(2011); Kim B.S(2015); Ellison N.B(2007)는 연구 살펴볼 때, SNS 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웹인덱스(GWI)가 세계 34 개 시장을 겨냥한 최신 SNS 동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4%가 최소 1 개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SNS 와 메신저 앱의 하루 평균 로그인 시간이 2 시간 24 분을 넘는다. SNS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 년 GWI 가 조사한 46 개국 중 22 개국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거

나 유지했다(GWI, 2020).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SNS는 개인 미디어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개인 대 개인, 대인관계의 정체성을 다수에게 부여한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타인과의 유대감과 관계성을 추구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온라인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SNS는 관심 주제 공유, 대화 정보 공유, 관계 유지 등 사회활동의 관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성가희, 2011). SNS는 관계를 강조하며, SNS는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SNS에서의 관계형성 과정은 진정한 사회적 대인관계를 네트워크로 이전하는 것으로, 실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인터넷상에서 기존의 대인관계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대인관계도 형성했다. SNS는 사용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연구자들의 초점이 되어 왔다.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생각, 걱정,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므로 관계는 정보이고 정보는 관계이다(김경달 등 2013). 뉴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SNS 플랫폼이 등장해 사용자들의 차별화된 이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1) 한국 SNS 사용현황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2년 4월 발표한 2021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세 이상 국민은 총 5,090만 명이며 이 중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93%(4,731만 6,650명)로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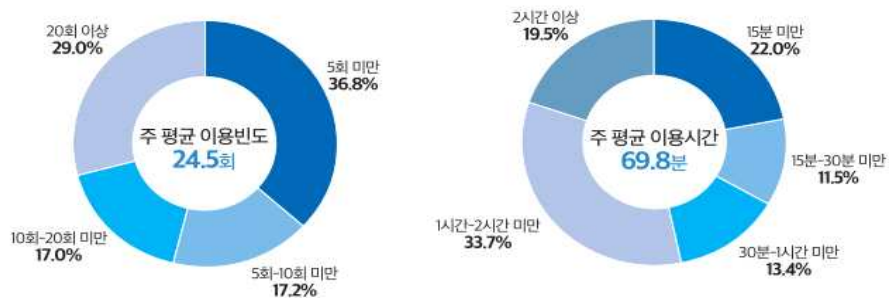
1.1%(498 천명) 증가했다.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한국 SNS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SNS 이용률 중 2021 년 현재 만 6 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최근 1 년이내 SNS 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68.9%이며, PC 를 통한 이용률(32.6%)보다 모바일기기를 통한 이용률(66.6%)이 2 배 이상 높았다(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1, pp.59).



<그림 1> SNS 이용률 (% , 만 6 세 이상 SNS 이용자)
출처 :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21, pp.59)

만 6 세 이상 SNS 이용자들의 주평균 이용빈도는 24.5 회(하루 평균 3.5 회)이며, 세부적으로 ‘5 회 미만’(36.8%), ‘20 회 이상’(29.0%), ‘5 회-10 회’(1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평균 SNS 이용시간은 69.8 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주일에 ‘1 시간 이상’(1-2 시간 미만 33.7%, 2 시간 이상 19.5%) 이용한다는 의견은 53.2%로 나타났다(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1, pp.140).



<그림 2>주평균 SNS 이용 빈도, 이용 시간 (% , 만 6 세 이상 SNS 이용자) 출처 :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21, pp.60)

한국 SNS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SNS 서비스는 페이스북(57.7%)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인스타그램(56.5%), 네이버 밴드(32.1%), 카카오톡(24.5%), 카페(15.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1, pp. 141).



그림 4-11) 주이용 SNS 서비스(3개 항목 응답, %, 만 6세 이상 SNS 이용자 기준)

<그림 3>주이용 SNS 서비스 (3 개 항목 응답, %, 만 6 세 이상 SNS 이용자) 출처 :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21, p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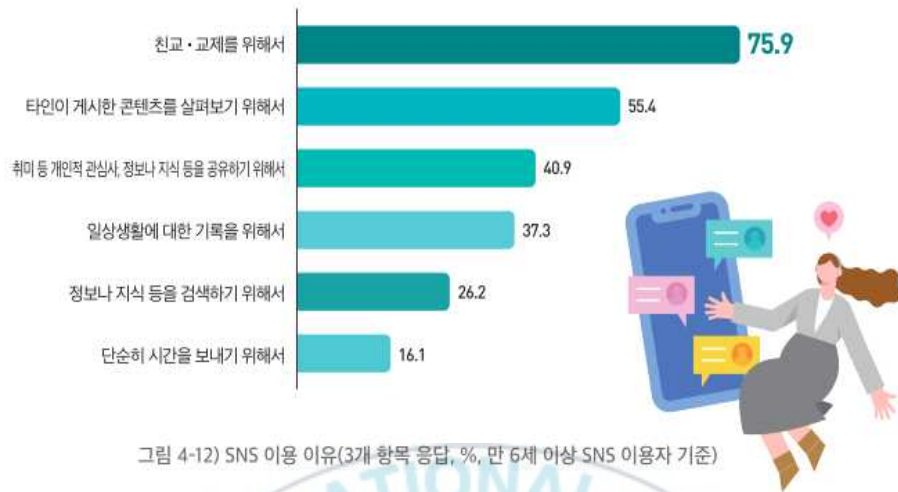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주이용 SNS 서비스 이용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페이스북’은 여자(54.3%)보다 남자(60.9%)가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페이스북’은 30대 이하(‘6-19세’ 58.9%, ‘20대’73.1%, ‘30대’68.6%)에서 ‘네이버 밴드’는 40-60대(‘40대’40.2%, ‘50대’47.6%, ‘60대’4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카페 (네이버, 다음 등)	블로그 (네이버, 다음 등)	트위터	틱톡 (TikTok)
성별	남자	60.9	55.8	32.5	21.2	14.9	12.9	7.2	5.4
	여자	54.3	57.3	31.6	27.9	15.6	13.8	6.7	5.5
연령	6-19세	58.9	65.7	16.0	19.3	9.9	11.0	7.6	16.9
	20대	73.1	79.0	22.3	17.3	15.0	13.8	11.3	6.9
	30대	68.6	71.0	27.5	22.2	17.8	17.4	9.1	4.4
	40대	56.4	51.0	40.2	29.1	19.1	14.9	6.0	3.1
	50대	43.3	32.8	47.6	29.4	15.8	11.9	2.7	1.5
	60대	30.4	22.2	42.3	35.6	10.0	7.1	2.3	1.5
	70세 이상	38.8	28.7	26.3	14.8	8.7	9.2	0.9	0.6

<그림 4>성 연령별 주이용 SNS 서비스 (3개 항목 응답, %, 만 6세 이상 SNS 이용자) 출처 :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21, pp.141)

만 6세 이상 SNS 이용자는 ‘치교/교제를 위해서’(75.9%)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55.4%),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40.9%),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3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21, pp.142).



<그림 5> SNS 이용 이유 (3개 항목 응답, %, 만 6세 이상 SNS 이용자) 출처 :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21, pp.142)

2) 중국 SNS 사용현황

2022년 2월 25일 중국 인터넷망정보센터(CNNIC)가 발표한 제 49차 중국 인터넷망 발전상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10억 3,200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73.0%에 이른다. 2020년 12월 보다 2.6% 높아졌다. 이 가운데 중국의 SNS 이용자 규모는 10억 0,700만 명으로 2020년 12월보다 2,555만 명 늘어 전체 네티즌의 97.5%를 차지했다. COVID-19 지속적 확산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로 인해 SNS 활용율이 높아지고 있다(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 2022).

<표 1>. 중국 SNS 의 플랫폼

중국 SNS 의 플랫폼		
인스턴트 메시징 (Instant Messaging)		QQ, 위챗(微信), 모모 (陌陌) , 아리왕왕 (阿里旺旺) 등
기타 플랫폼	종합 소셜 플랫폼	QQ zone, 시나 웨이보 (新浪微博) , 위챗, 모켄트 (微信朋友圈) 등
	사진 및 쇼트 크립플랫폼	틱톡(TikTok), 메이파이 (美拍) , 화산샤오스핀 (火山小視頻) 등
	커뮤니티 플랫폼	즈후 (知乎) , 또우반 (豆瓣) , 천애 (天涯) 등
	연애 결혼 교제 플랫폼	세기가연 (世紀佳緣) , 전아이넷 (珍愛網) 등
	비즈니스 플랫폼	LinkedIn 등

출처 : 2016 年中國社交應用用戶行爲報告(2017)

제 48 차 중국 인터넷 발전상황 통계보고서(The China Stati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第 48 次中國互聯網發展狀況統計報告, 2022)에 따르면 인스턴트 메시징 이용자 규모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애플릿·비디오번 호 등을 활용해 메모리 이용자의 현금화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첫째, 인스턴트 메시징 사용자의 규모가 성장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가장 주류인 두 개의 인스턴트 메시징 제품 중 QQ 모바일 월간 활성 계정 수는 2018 년 최고치(7 억 가구)에서 하락하기 시작해 2021 년 1 분기에는 6.06 억 가구, 당기 1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6%감소했으며, 위챗의 전 세계 월간 활성 계정 수는 2019 년 1 분기부터 증가폭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2021 년 1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3%에 그쳤다.

<표 2>. 중국 대표적인 플랫폼의 특징

중국 대표적인 플랫폼	특징
위챗 (WeChat) QQ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친구와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Q zone 위챗 모멘트 (微信朋友圈)	사진 업로드, 일지 쓰기, 일상기록 친구와 가족 최근 변화 파악, 자아표현과 자아홍보
시나 웨이보 (Sina weibo)	웨이보는 사용자 관계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와 소통·획득 서비스, 사진·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로 실시간 정보 공유·소통을 제공하는 SNS 플랫폼이다.
TikTok (抖音)	TikTok 은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짧은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공유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바이두 티에바 (Baidu Tieba)	바이두 티에바는 검색엔진과 결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은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이다.
셔어홍슈 (小紅書)	패션 정보공유,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림, 해외 제품 직구
쯔후 (知乎)	소셜 Q&A 사이트, 정보검색과 공유 활동을 사고 활동과 융합시켜 원작(original content) 내용이 계속 생산

최근 몇 년간 등장한 숏 비디오 같은 SNS 플랫폼은 Kwai, TikTok 등 플랫폼의 이용자의 합이 9억 3415만 명으로 2018년 말보다 2억 8617만 명을 증가하며 네트워크이용자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图 42 2018.12-2021.12 短视频用户规模及使用率

<그림 6>2018.12~2021.12 쇼트 동영상 이용자 규모 및 이용률
출처 : CNNIC 中國互聯網發展狀況統計調查(2022)

나. 유학생과 SNS

일부 학자들은 대중매체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중매체의 접촉과 현지인과의 인간적 교류의 정도는 개개인의 문화적응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대중매체의 사용은 또한 이민자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민자들이 사회적 소속감과 정서적 의존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다문화 적응을 위한 미디어 사용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화 배경 하에서 인터넷은 이미 사람들이 현지 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디지털화, 상호작용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특징은 다문화 전파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는 다문화 적응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이수범과 김동우(2009)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과정에서 대중매체 활용과 문화교류 능력의 매개효과를 얻었다. 중국 유학생들의 매체 이용 행태에 따른 그들의 문화적 적응, 정서적 욕구 충족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김지연, 어성연, 2015).

Ellison & Lampe(2007)은 "SNS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용의 주요 경로인 주류 영향력과 사회적 관계, 삶의 경험 공감의 조절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간접 경로를 만족시킨다. 주류 영향력은 SNS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역사·문화·사회·정치·경제 등 암묵적인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유학생들이 사회 주류의 SNS에 노출되면 그 정보가 나타내는 관념과 생활방식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SNS는 사회적 교체 기능에 기반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삶의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조절하는 역할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 SNS는 유학생들에게 문화·주택·건강 등 의미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Sin & Kim, 2013).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 또한 폭넓게 SNS를 사용하고 있다(남종훈, 2015). 대부분 외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미디어의 이용, 특히 현지 미디어는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김선남, 2007; 김현주의, 2007; 이재신외, 2014). SNS의 사용은 유학생들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소통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또한 실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유학생들의 불안함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Rui & Wang, 2015).

Chen & Marcus(2012)는 프랑스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보를 얻는 상호 교류, 오락 및 소일거리가 중국 유학생들의 SNS 이용의 가장 큰 목적이다.

쏘우(Saw et al., 2013)등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친구와 교류, 친구의 근황 파악, 가족들과 연락하는 목적으로 SNS 를 사용한다. 린(Lin et al., 2011)과 동료들도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 관련한 연구에서 유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현재의 사회적 및 문화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왕매와 나미수(2015)는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 사용이 학업적응, 정보추구, 여가생활, 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가. 문화적응의 개념

문화 적응(acculturation)은 복잡한 과정으로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학, 심리학, 방송학 등의 분야에서 모두 다루어진다. 문화적 적응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많은데, 현재 레드필드(Redfield), 린턴(Linton), 허스코비츠(Herskovits) 등의 인류학자들이 1936 년에 제시한 정의로, "개체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적 접촉을 하여 한쪽 또는 양쪽의 기존 문화 패턴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Redfield,Linton,Herskovits, 1936).

사회적 의미에서 문화적응이란 한 사람이 사회의 여러 조건이나 상황과

잘-조화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외적·사회적·물리적 환경·내적·심리적 욕구와 조화를 이루며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좌절감·위협 없이 만족하는 상태를 말한다(황선영,2008). 개인이 살던 곳을 떠날 때는 언어·정치 시스템·문화적 가치관·규범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문화적응을 하나의 동적 과정으로 보는 것은 개인이 낯선 문화 환경 속에서 구축하거나 재건하는 것이며, 이는 환경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호보완 관계를 갖는 것이다(Kim,2001).

Williams & Berry(1991)는 이민자 집단이 거주지역에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겪고 적응하며 영양 상태와 질병과 같은 신체적 변화를 겪는다고 말한다. 새로운 거주 지역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따라 이민자들은 정치 및 경제 관념의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집단간의 사회관계 내에서의 변화, 새로운 거주지역의 문화 접촉, 새로운 지역의 언어 습득, 새로운 지역의 종교 적응, 전통가치관, 교육방법 등이 있다. 개체적 수준에서 보면 개체는 행동, 정체성, 건강상태의 변화와 문화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론 방면에서, 외국의 다문화 연구 학자들도 비교적 풍부한 다문화 적응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널리 응용되는 이론 모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리즈가드(Lysgaard)는 1955년에 "U형 곡선 가설(U-curve hypothesis)"은 문화적응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S.Lysgaard,1955). 레스가르드는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한 노르웨이 학자 2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문화적응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봤다. U자형 곡선 가설에 따르면 체류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때 밀월(蜜月)기, 위기기, 조정기, 적응기 등의 심리적 단계를 겪는다. Gullahorn 등은 다시 이 U형 곡선을 확장하여 "W형 곡선 가설"(J.T.Gullahorn,1963).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류학자 칼레보 오베르그(Kalervo Oberg)가 제시한 문화 충격 이론이다(K. Oberg,1960); 그 후 Adler는 문화적 적응의 5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Adler,1975). 다문화 심리학자 존 베리(John Berry)는 문화 적응자의 태도를 융합, 분리, 동화, 주변화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이중차원의 문화 적응 모델을 제시하였다(J.W.Berry,1980). 이 모델 역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이론 모델 중 하나이다. 이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학자인 워드(C.Ward)는 다문화적응의 2 차원적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다문화적 영향요인을 사회문화적 적응(Sociocultural adaptation)과 심리적 적응(Psychological adaptation)의 두 차원으로 나누었다.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

위에서 소개한 Williams & Berry(199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적응을 경험하는 개인은 행동, 건강상의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응 이론으로부터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두 개념의 상관성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에서 가장 널리 연구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Williams & Berry, 1991).

Berry(1988)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개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이민자들은 익숙한 곳을 떠나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신이 기존의 존재체계를 상실하고 스스로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Sandhu & Asrabadi(1994)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이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때 개체나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에 문화적·사회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심리적·문화적 압박이 담겨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충격의 대체 용어이며, 그 개념은 심리

적 혼란과 부적응을 포함한다(Berry & Kim, 1987).

Kiefer(1974)에 따르면, 순조로운 문화적 적응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구조적 혼동, 문화적 충격과 문화적 소외감이 문화적 적응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영구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와 사회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Hahn(2010)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클수록 정신과 육체적인 증상도 더 심해진다고 말한다. 불안, 망설임, 열등감, 정체성 혼란 등 정서적 부적응도 있을 수 있다.(Williams & Berry, 1891).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특정 행동과 정서적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요인은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무기력, 짜증 등 다양한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 심리적 기능의 저하를 말한다(Miranda & Matheny, 2000). 둘째는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한 반응, 즉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표출하는 혐오감이나 이주문화에서 느끼는 거부감과 차별감이다. 마지막 증상은 향수병과 관련되어, 슬픔과 상실감,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Tartakovsky, 2007).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인간의 적응력을 넘어서면 우울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유명란 외, 2013).

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성요소

Cuellar et al.(1980)과 같은 외국 학자들은 주요 관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구성 요소를 다양한 차원과 개념으로 구성한 다중 측면 현상을 구분하고 있다. Sandhu & Asrabadi (1994)는 개발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SSIS)는 문화적응과정에서 특정한 행동과 정서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선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열등감, 문화충격, 죄책감 등이 있다(Sandhu & Araba, 1994).

김정식(2015)은 문화적응은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민자들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문화적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차별인식, 소통, 문화충격, 고립감, 즐거움, 두려움 등 6개 분야로 나뉜다.

또한 양옥경 외(2009)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향수병, 문화적 충격, 지각된 차별감, 증오심, 자책감, 두려움, 정체성혼동, 주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박지영과 이창식(2012)은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창운(2017)은 문화 충격, 적대감, 사회적 편견 등 구성하였다. 이민자 (2019)는 문화충격, 의사소통문제, 향수병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선행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충격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자각된 차별감은 학업이나 취업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내국인들이 유학생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보상과 대우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향수병 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본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 며,문화적 충격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했을 때 갖게 되는 불편한 감정과 정서적 불안 등이다(안준희, 조정희, 2011).

3. 문화계발효과 이론

가. 문화계발효과 이론의 개념

문화계발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은 미디어의 노출 정도가 현실에 대한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Gerbner, & Gross, 1976). 1970년대 텔레비전의 일반 대중에 대한 보급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에 적응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미디어의 이용에 따른 결과를 인식할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는 문화계발이라는 미디어 효과이론의 한 갈래로 제시되었다(Gerbner et al, 1980, 1986).

문화계발효과이론은 TV 시청 또는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미디어 속에서 재현되는 세상을 실제 현실인양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 미디어와 일치하는 현실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Gerbner et al., 1980, 1986). Gerbner(1980)에 따르면 대중매체는 사회적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청중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함양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문화계발효과이론을 정립하면서 거브너는 텔레비전의 메시지 전달은 프로그램의 장르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이는 표면적일 뿐 실제 사회의 묘사에 있어 일관된 이데올로기와 비슷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일관된 인상을 형성시킨다는 점을 주장하며 텔레비전에 대한 전체적인 노출빈도를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공통으로 인식되는 현실인상에 대한 문화계발효과를 설명했다(Gerbner et al. , 2002).

전통적으로 문화계발 연구는 주로 폭력 또는 범죄, 인종 고정관념, 성 역

할 등과 같이,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이 수용자의 현실 세계 또는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 주목해 왔고, 이를 핵심적 연구 주제로 다루어 왔다(오미영,2014; Gerbner, Gross, Morgan, Signorielli, & Shanahan,2002; Martins & Harrison,2011; Scharrer & Blackburn,2017). 이로써 텔레비전의 시청량이 주요 독립변수로 강조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텔레비전은 가장 대중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점으로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선택적 이용보다는 가용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매체에 노출되며 이로써 표준화된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심정옥, 2008).

나. 문화계발효과 이론과 SNS

다양한 뉴미디어의 발달로, 텔레비전은 더 이상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다양한 뉴미디어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는 점차 주류 정보 보급과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발전해왔다. 소셜 미디어의 이러한 주류 지위의 확립은 우리에게 소셜 미디어를 문화계발효과이론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Morgan & Shanahan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초적인 서사 시스템은 미디어가 작용하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떤 유행이 있고 주도적이며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대중이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의 플랫폼이라면, 문화계발효과 이론은 이러한 매체의 장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SNS. 텔레비전보다 SNS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사회 사건의 발전을 따라갈 수 있다. 여러 매체의 형식과 내용을 집대성함으로써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미지, 음성, 문자, 상호작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해독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적시성 때문에 SNS 가 주는 메시지가 더욱 실감 나게 느껴진다. 따라서 SNS 는 TV 보다 더 나은 서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소영(2014)의 연구중 청소년의 SNS 이용시간에 따른 우울 및 충동성의 차이에 대해 연구중 성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SNS 이용시간 상위 집단의 우울이 SNS 이용시간 하위집단의 우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임은주,최주형,김다빈,박은아(2019)는 20 대의 SNS 사용이 명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 비교 경향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의 연구결과 보면 SNS 사용시간(상, 중, 하)에 따른 명품 구매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비교 경향성(상, 하)에 따른 명품 구매의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이 예상한 SNS 사용시간과 명품 구매의도에 대한 사회비교 경향성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SNS 사용시간과 사회비교 경향성이 독립적으로 명품구매의도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정의진, 김혜원등(2021)의 연구 코로나 19 이후 SNS 를 통한 온라인상 호작용이 20 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라인상호작용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일평균 SNS 사용시간과 SNS 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행동적인 변화를 조절하고 중재하는 공동적 인지기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이 가진 기술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Bandura,1977)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설계하고 실행해 가는 자신의 능력

(Bandura,1986)에 대한 판단이다.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음으로서 현재의 성공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과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성공적 경험에 기초한 개인의 직접적 성공경험, 타인의 성공에 대한 관찰, 간접적인 정보, 이미지에 의한 대리경험, 가족, 교사, 동료, 친구들에 의한 격려와 같은 언어적 설득 및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은 사회적 설득(오인수, 2002), 불안과 공포보다는 정서적 안정 상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이는 생리적 각성과 같은 심리, 신체적 안정 등과 같은 4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로 형성되며, 이후 고난도의 개인적 목표설정과 노력의 동원 및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끈기 있게 매달리는 지속성, 끈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Bandura, 1977, 1986).

Bandura(1982)에 따르면 불안과 공포의 감정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때 느끼는 무력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에선 자신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이 자기효능으로 여겨지며 자기효능이 높아질수록 불안감은 줄어든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 있게 행동한다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그 상황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대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패 후에도 좌절감은 낮고 완충제 역할을 하여 개인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또 익숙하지 않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대응력을 발휘한다(오인수, 2002).

5.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언어, 비언어적 정보나 충고, 유형적 도움이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지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적 특징과 개인과 연결된 관계망을 의미하는 구조적 특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 즉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지지라고 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적 지지가 인류가 받는 압력과 적응 사이의 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1967년 Holmes & Rahe가 사회재적 응답도를 개발하고 1976년 Cassel이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회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Cassel, 1977). Cobb(1976)는 개인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정의한다. 이처럼 Caplan(1974)과 Cobb(1976)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과 효과로부터 접근한다. 또한 House(1981)는 하나 이상의 감정적 관심을 포함하는 인간관계로 정의되며 둘 또는 둘 이상의 개인적인 자원교환이라고 정의하였다. Thoits(1982)는 사회적 지지를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사회적·감정적 지지와 구체적 지지로 구분한다. 또 Zimet(1988) 외에도 가족, 친구, 관련 제3자 등 각 주체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정도를 사회적 지지로 구분했다. Cohen & McKay(1984)에 의해 사회

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완충작용도 있어 스트레스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건강과 연관된 사회, 심리학적인 변인으로서 우울 및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에 대해 올바른 적응과 대응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eo et al., 2013).

또한 국내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긍정적 지지로 본다.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변의 도움과 도움을 받아 개인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바로 우리 삶의 동력이고 활력이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원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이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심리조절을 도와주며, 개인이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하상훈, 2000).

박지원(1985)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함으로써 적응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를 받는 긍정적인 지지로 정의하였으며, 권석만(2011)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친밀감, 인정과 사랑, 소속감, 배려와 배려, 정보 제공 등 심리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지지라고 봤다. 김엄권(2012)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사랑 인정 정보 등 긍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훈(2014)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 그리고 정보 제공과 업무 활동에 필요한 충만함으로 구체화했다.

6. 각 변인과의 관계

가. 유학생의 SNS 사용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인간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Sandhu & Asrabadi, 1994), 유학생은 다른 외국인 그룹과 달리 짧은 체류기간, 학업 필요성, 생활·교류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다른 외국인 체류 그룹과의 차이라고 인식되고 있다(Johnson & Sandhu, 2007; Misra & Castillo, 2004; Mori, 2004). Sandhu & Asrabadi(1994)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환경을 접하고, 각양각색의 스트레스 요소가 존재하는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새로운 사회, 문화, 교육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가장 흔한 경험은 언어 장애, 학업 요구, 향수, 사회적 지지, 자존감 감소 등이다(Pederson, 1991; Poyrazli, et al., 2002). 유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고독, 우울, 물리적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Pederson, 1995).

Phillips & Norsworthy(1997)는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응 과정에서 주로 경험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수증, 음식 문제, 언어 문제, 병구치료, 경제적 문제, 장래 직업 계획, 친구 관계, 이성과의 사회적 관계, 집을 구하는 문제, 종교, 이주국의 폭력, 인종차별, 새로운 교육 체계에 적응하는 문제.

Sullivan & Kashubeck-West(2015)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중규모 공립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생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유형, 사회적 지원의 원천(source of social support)과 문화적응형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형 스트레스는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형 및 사회

적응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통합유형 유학생은 동화·분리·주변화 유형에 비해, 폭넓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유학생은 덜 받는 유학생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크게 떨어졌다.

위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 유학생들도 새로운 문화에 융합된 집단에 속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 접하지 못했던 한국 문화에 녹아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심지어는 일상생활과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유학생이 스트레스를 제때에 풀지 않고 유학생생활을 지속한다면 유학생 개인은 우울함, 불안감, 망설임 등을 겪을 수 있다.

사람들이 타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교류이다. 좋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풍부하고 튼튼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 양질의 사회 네트워크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감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조절작용을 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가 개개인에게 이처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를 가진 양쪽에 동시에 긍정적인 지지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연결고리가 중첩되어 형성된 관계망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지지는 물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상호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물질적 생활,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쉬샤오핑과 쉬창갑(2011) 연구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용하는 SNS 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 SNS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생들에게 SNS 의 활용은 단일한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유학생들이 겪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고민이 SNS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옥련과 왕설(2013)은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SNS 역학을 연구했으며,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 SNS와 중국 SNS의 서로 다른 사용 동기를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 유학생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SNS를 이용하는 반면 중국 SNS를 이용하는 것은 휴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보 획득, 인맥 형성, 편리성 등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한국 유학 적응 동기는 한국 SNS 이용 기간과 부(-)적 관계이며, 중국 SNS 중독성과 정(+)적 관계가 있다.

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 있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과제 수행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강화를 위한 선행 대변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어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타인이 자신의 능력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 아니라 쉽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효능감은 의미 있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와 해석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달했다고 밝혔다. 즉, 타인의 지지가 개인의 신념을 통해 후속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박지원, 1985; 이계상, 2018).

임창희(2008)는 부정적 정서적 성향과 집단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지지의 매개역할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효능감 증진은 개인의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기효능감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혜정과 서영석(2005)의 청소년학교 급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청소년사회지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강해지고 학교 적응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임(2014) 직장인의 행복,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직무만족 및 조직투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계상(2018)의 언론인의 노후준비와 사회적인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잘 갖춰지면 자기효능감도 향상된다는 것이다.

다. SNS의 사용,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기술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만 감지할 수 있었던 사회적 지원 개념이 온라인을 넘나들고 있다. 특히 SNS는 기존의 오프라인 사회관계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형성을 돕고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김용찬 외(2012)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의 사회적 지지 유형을 4가지로 나눠 SNS의 특수성을 반영해 SNS에서 감지되는 사회적 유형을 정보지지, 정서지지, 평가지지, 도구지지로 분류했다. 정보지지는 개인이 SNS에 게시하는 개인의 읽기, 경력, 새로운 지식과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이다. 정서지지는 어려움을 겪거나 병이 났을 때 SNS에 불만을 올리고 댓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다. 평가지지는 특정 사안에 대해 SNS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지 또는 반대하는 평가적 코멘트를 받는 것을 말한다. 도구지

지는 서명운동이나 SNS 를 통한 기부금 모금 등 실질적·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SNS 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관계 맺기의 장소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SNS 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친구 수, 피드백 등도 사회적 지원의 일부라는 점에서 오프라인과 비슷한 사회적 지원을 SNS 에서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홍지은, 2012).

박유진·김재희(2005)의 연구 따르면 온라인에서 맺은 관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지인들도 SNS 를 통해 관계를 증진할 수 있고, 오프라인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높아질 것임을 보여줬다. 이는 오프라인 관계가 단순히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SNS 를 통해 더 이상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윤경(2012)의 조사 결과 SNS 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친구들의 지지를 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되는 결과도 있었다. 최은진과 김주환 외(2012)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높아 트위터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트위터(SNS)를 매개로 사용하면 오프라인, 상대적 자유, 폭넓은 대인관계 등 넓은 영역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 지지가 낮고, 사회적 관계, 거부 능력에 대한 압박이 적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트위터(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호 동의를 통해 우정이 형성되는 페이스북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방적인 관심을 통한 관계 형성이 덜 어렵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SNS 사용과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최태일(2001)의 연구 결과는 외국인 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학생들의 사회 생활에서 주변 서포터들이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사

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정서적·신체적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적응 스트레스에 완충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외국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혁심(2005)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연구는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압박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흥직(2011)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회지지 요인 중 교수 지원, 만남 빈도, 가족 지원, 중국인 친구로부터의 동료 지원, 정서 및 평가 지원, 경제 및 도구 지지등이 한국에 거주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 및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안산정, 이현철, 임지영(2013)의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고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호와 윤천성(2019)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반응 이론이 자기효능감과 참여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연구결과 모바일 메신저의 즐거움, 모바일 서비스 지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흥재 등(2012)은 자기효능감을 개인 특성의 하위 요소로 활용하여 사용자 인지적 요인과 개인 특성이 SNS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인지적 유용성과 사용 편의성이 자기효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윤희 씨(2015)는 S 시와 G 도에 거주하는 만 65 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고령자 우울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스마트기기 사용과 미사용으로 인한 집단간 평균 차이가 현저하며 스마트기기 사용자(36.07 점)가 미사용자(33.41 점)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요인도 중요하지만, 유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도 중요하다.

Litt(1988)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면 여러 스트레스 요인 하에서의 성능이 향상돼 정서적 괴로움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지엄(2014)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떨어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력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다.

기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적응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중요한 요인으로 삼고 인구통계 특성, 자기효능감, 한국어능력 등 개인 심리·인격 특성 등을 관련 변수로 제시했다. (K. G. Rice, et al, 1995, E. S. Choi. 2001, G. S. Kim & J. I. Hwang. 2009, J. W. Yu. 2013, J. H. Lee. 2011).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에 따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7]과 같다.

연구문제 1.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1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2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3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1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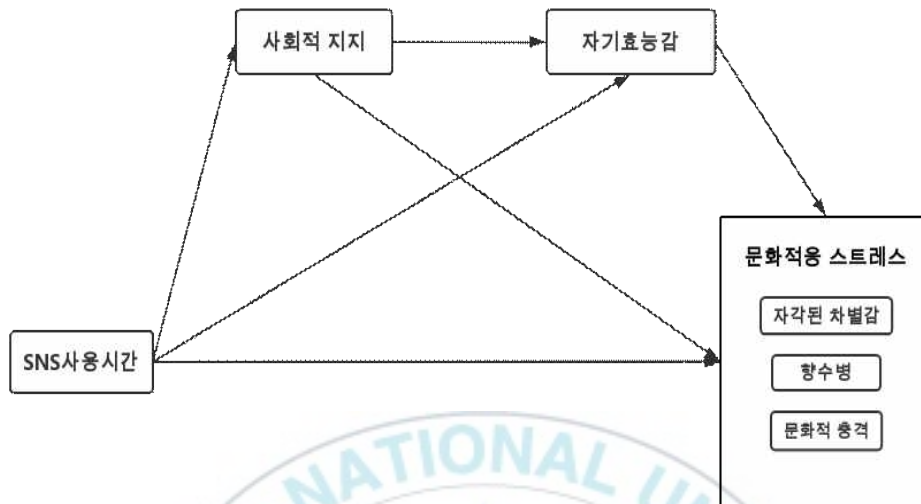
3-3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문제 4.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4-1.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4-2.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4-3.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7>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한국 부산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비확률 표집방법 중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과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2022년 4월 1일에서 4월 12일까지 중국 전문 설문조사 업체인 ‘문지위안썩(問卷星)’을 통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총 242부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유학생 아니다 응답했다고 판단된 3부를 제외시키고 남은 239부를 최종 표본으로 삼아 연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효율성 98%.

3.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조사도구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세부적인 변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가. SNS 사용시간

SNS 사용시간의 측정은 양혜승 외(2012)가 개발한 ‘페이스북 읽기’ 측정 방법을 관비송(2017)과 신미정 외(2019)은 측정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관비송(2017)과 신미정 외(2019)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양한 SNS 사용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SNS에서 다른 사람이 올려놓는 내용을 읽는 행위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 SNS에서 다른 사람의 피드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읽는 행위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자신의 SNS 사용시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SNS 사용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범주화하였다 ‘30분 미만’ 1, ‘30분 이상~1시간 미만’ 2,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3,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4, ‘3시간 이상’ 5로 구분하여 측정 사용하였다.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andhu와 Asraba(1994)가 개발하고, 이승중(1996)가 한국어로 번안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황지인(2008)이 다시 중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각된 차별감 6 문항, 향수병 4 문항, 문화적 충격 3 문항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 5='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et.al(1990)이 개발한 척도를 길귀숙(2003)이 재구성한 도구를 도구 개발자에게 이 메일로 도구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도구는 의미 있는 타자 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 문항이다. 각 문항은 5 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 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 자기효능감

자기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Schwarzer & Jerusalem (1979)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Scale)의 10 문항을 이영민(1994)이 번안한 도구를 이채식(2005)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은 총 7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 점 Likert 척도이다.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변수 또는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독립변수	SNS 사용시간		I-1	1
매개변수	자기효능감		II-1,2,3,4,5,6,7	7
	사회적 지지		III-1,2,3,4	4
종속변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각된 차별감	IV-3,5,6,8,9,12	6
		향수병	IV-1,4,10,13	4
		문화적 충격	IV-2,7,11	3
인구사회학적 관련요인	성별, 나이, 한국어 등급, 유학 형태, 한국 거주시간		V-1,2,3,4,5	5
합계			30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6.0 과 AMOS 26.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및 전반적인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및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NS 사용시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충격 각 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셋째, 모형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했으며, 구조모형을 통해 구현된 잠재변수 간 경로 평가를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다.

넷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Hayes, 2012). 부트스트랩은 표본을 축소된 모집단으로 간주하고 표본과 같은 크기의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추출된 표본으로 추정치의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표준오차를 구하는 방법이다.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 내에 0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IV.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특성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 지역 중국 유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239 명의 유효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여성 125명, 남성 114명으로 각각 51.7%, 47.1%로 큰 차이가 없어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가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에서는 조사 대상 연령이 20~30 세 사이에 집중돼 누적 비중이 64.1%에 달했고, 20 세 이하와 30 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어 등급 방면에서 대다수 조사 대상 한국어 등급은 4 급 이상이며, 그중 4 급과 5 급 한국어 등급의 사람들이 가장 많으며, 그 비중이 30% 이상에 달하여 이번 조사 대상 한국어가 어느 정도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학부와 석사가 각각 40.1%와 38%로 가장 많았고, 어학당 가장 적었고, 박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에 거주 시간은 42.1%가 2~5 년 동안 한국에 살았고, 그다음으로는 1~2 년 동안 살았다는 응답이 33.1%로 그 외의 거주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4> 인구통계학적특성

(N=239)

	구분	학생수(명)	비율(%)	누적비율(%)
성별	여성	125	52.3	52.3
	남성	114	47.7	100
연령	20 세 이하	38	15.9	15.9
	20 세-25 세	80	33.5	49.4
	25 세-30 세	75	31.4	80.8
	30 세 이상	46	19.2	100
한국어 등급	3 급이하	3	1.3	1.3
	3 급	7	2.9	4.2
	4 급	81	33.9	38.1
	5 급	99	41.4	79.5
	6 급	49	20.5	100
유학 형태	어학당	19	7.9	7.9
	학사	97	40.6	48.5
	석사	92	38.5	87
	박사	31	13	100
거주시간	1 년 이하	16	6.6	6.6
	1 년-2 년	80	33.5	40.1
	2 년-5 년	102	42.7	82.7
	5 년 이상	41	17.2	100

2.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SNS 사용시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충격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5> 관련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SNS사용 시간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충격
SNS사용시간	1					
자기효능감	.437**	1				
사회적 지지	.492**	.503**	1			
자각된 차별감	-.575**	-.485**	-.612**	1		
향수병	-.515**	-.432**	-.423**	.465**	1	
문화적 충격	0.038	0.078	0.126	-.130*	-0.014	1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SNS 사용시간은 자각된 차별감($r = -.575$, $p < .01$), 향수병($r = -.515$, $p < .01$)와 정적 상관을 보고 문화적 충격($r = 0.038$, $p > .01$)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많은수록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이 모두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SNS 사용시간은 사회적 지지($r = .437$, $p < .01$), 자기효능감 ($r = .492$, $p < .01$)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중국 유학생의 SNS사용시간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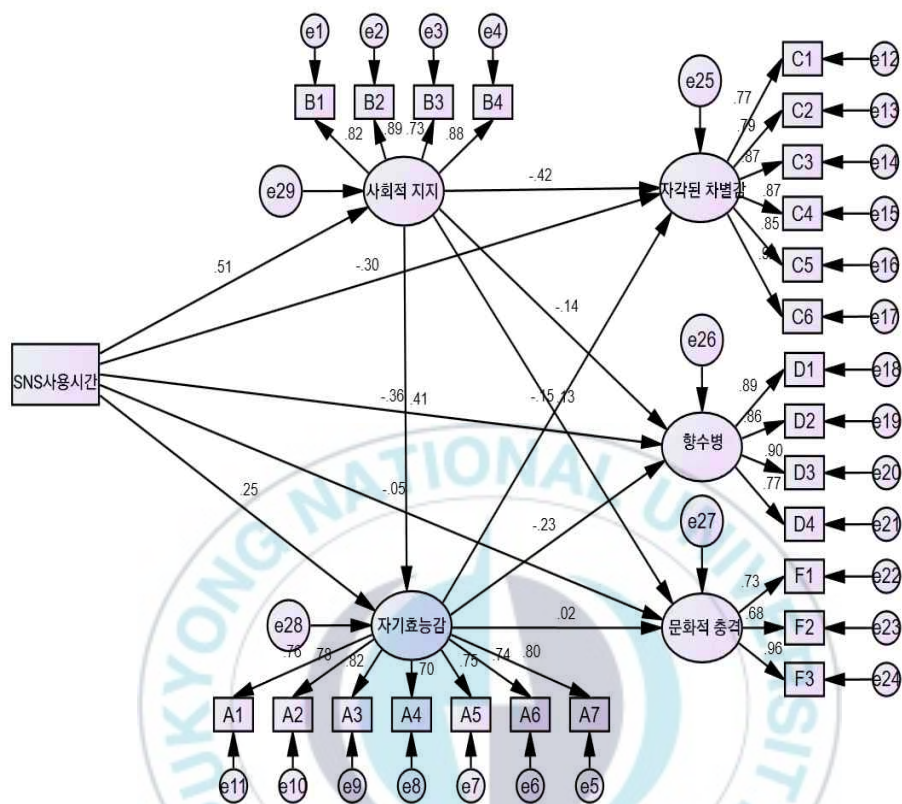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 ($r=.503$, $p<.01$)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은 χ^2 값과 적합도 지수 TLI (Turker -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TLI, CFI는 수치가 .90 이상이고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RMSEA는 .05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 .08 이하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일 경우 보통 적합도, .10 이상일 경우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홍세희,2000). 측정모형 검증결과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적합도 지수 결과는 아래 표 6 와 그림 8 에 요약하였다.

<표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CFI	TLI	RMSEA
지수	328.8	264	.984	.982	.032



<그림8> 구조모형

총 6개의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에 대한 검증 결과를 아래의 <표7>에 제시하였다.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300$ 이었고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362$ 으로 나타났다. 또한 P값이 $p < 0.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050$ 이고, P값 또한 .541로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자각된 차별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418$ 으로 나타났다. 또한 P값이 $p < 0.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향수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142$ 이고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 충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132$ 이고, P값이 각각 .061 .153로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

자기효능감이 자각된 차별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149$ 이었고 자기효능감이 향수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228$ 으로 나타났다. 또한 P값이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문화적 충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021$ 이고, P값 또한 .812로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SNS 사용시간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507$ 이었고 SNS 사용시간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253$ 으로 나타났다. 또한 P값이 $p < 0.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eta = .415$ 으로 나타났다. 또한 P값이 $p < 0.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판단되었다.

<표7> 경로분석 결과

경로	B	β	S.E.	C.R.	p
자각된 차별감 ← SNS 사용시각	-.171	-.300	.035	-4.925	***
향수병 ← SNS 사용시각	-.267	-.362	.050	-5.323	***
문화적 충격 ← SNS 사용시각	-.031	-.050	-.050	-.611	.541
자각된 차별감 ← 사회적 지지	-.357	-.418	.062	-5.777	***
향수병 ← 사회적 지지	-.157	-.142	.084	-1.870	.061
문화적 충격 ← 사회적 지지	.122	.132	.085	1.428	.153
자각된 차별감 ← 자기효능감	-.125	-.149	.055	-2.279	*
향수병 ← 자기효능감	-.248	-.228	.081	-3.049	**
문화적 충격 ← 자기효능감	.019	.021	.081	.238	.812
사회적 지지 ← SNS 사용시각	.339	.507	.042	8.013	***
자기효능감 ← SNS 사용시각	.171	.253	.046	3.693	***
자기효능감 ← 사회적 지지	.421	.415	.076	5.505	***

4. 매개효과 검증

SNS 사용시간과 자각된 차별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5,000 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8>과 <그림 9>과 같다

모형의 총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166, CI[-.242~-.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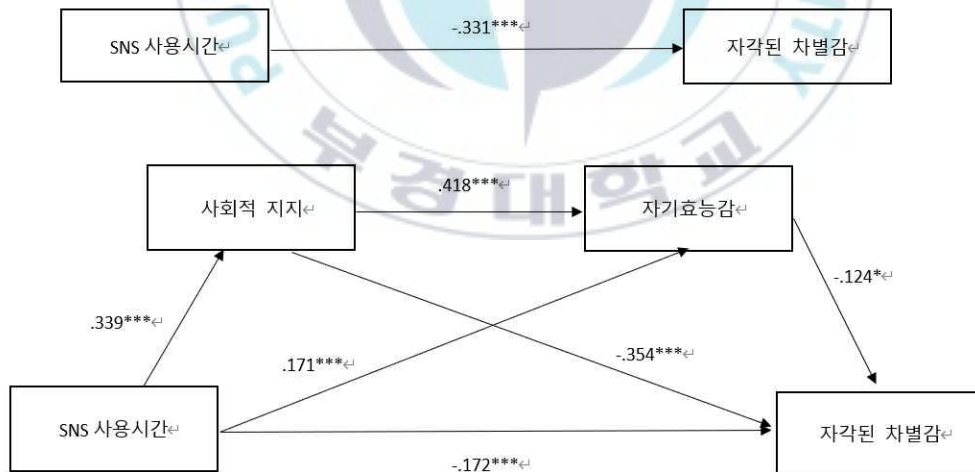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SNS 사용시간이 사회적 지지를 경유하여 자각된 차별감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122, CI[-.179~-.073]).

또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자각된 차별감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257, CI[-.063~-.004]).

이중매개효과의 크기 검증 결과 SNS 사용시간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자각된 차별감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19, CI[-.038~-.004]).

<표8> SNS 사용시간과 자각된 차별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		매개효과 검증				
		Effect	S.E.	LLCL	ULCL	p
총 효과	직접효과 + 간접효과	-.331	.042	-.414	-.249	.000
직접 효과	SNS 사용시간 → 자각된 차별감	-.172	.048	-.275	-.083	.001
간접 효과	SNS 사용시간 → 사회적 지지 → 자각된 차별감	-.120	.029	-.185	-.071	.000
	SNS 사용시간 → 자기효능감 → 자각된 차별감	-.021	.015	-.062	-.001	.034
	SNS 사용시간 → 사회적 지지 → 자기효능감 → 자각된 차별감	-.018	.010	-.043	-.003	.025
	총 간접효과	-.159	.037	-.240	-.096	.000



<그림 9> 자각된 차별감의 다중매개효과의 경로분석

SNS 사용시간과 향수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5,000 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9>과 <그림 10>과 같다.

모형의 총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398, CI[-.479~-.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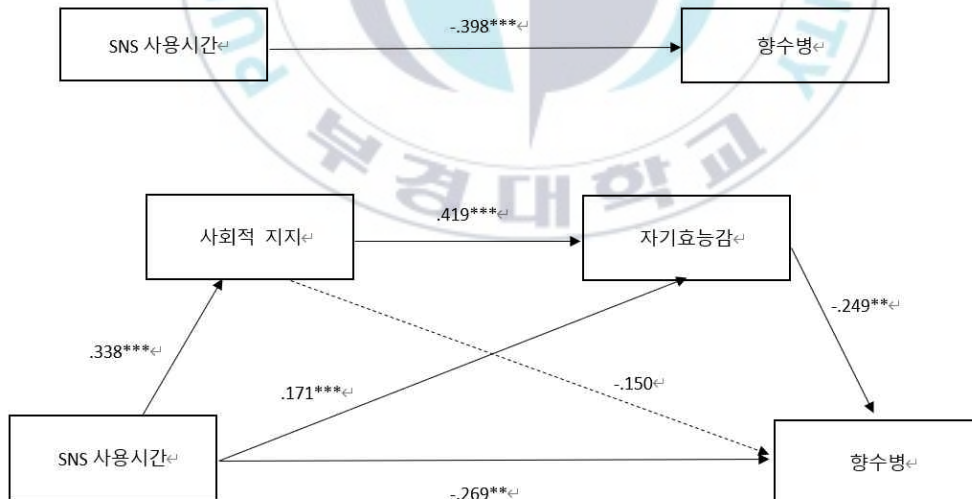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SNS 사용시간이 사회적 지지를 경유하여 향수병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51, CI[-.132~.010]).

또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향수병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43, CI[-.118~-.005]).

이중매개효과의 크기 검증 결과 SNS 사용시간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향수병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35, CI[-.080~-.010]).

<표9> SNS 사용시간과 향수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		매개효과 검증				
		Effect	S.E.	LLCL	ULCL	p
총 효과	직접효과 + 간접효과	-.398	.042	-.479	-.313	.000
직접 효과	SNS 사용시간 → 향수병	-.269	.061	-.382	.042	.000
	SNS 사용시간 → 사회적 지지 → 향수병	-.051	.035	-.132	.010	.100
	SNS 사용시간 → 자기효능감 → 향수병	-.043	.029	-.118	-.005	.017
	SNS 사용시간→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향수병	-.035	.017	-.080	-.010	.008
	총 간접효과	-.129	.044	-.055	-.055	.000



<그림10>향수병의 다중매개효과의 경로분석

SNS 사용시간과 문화적 충격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10>과 <그림11>과 같다.

모형의 총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17, CI[-.06~.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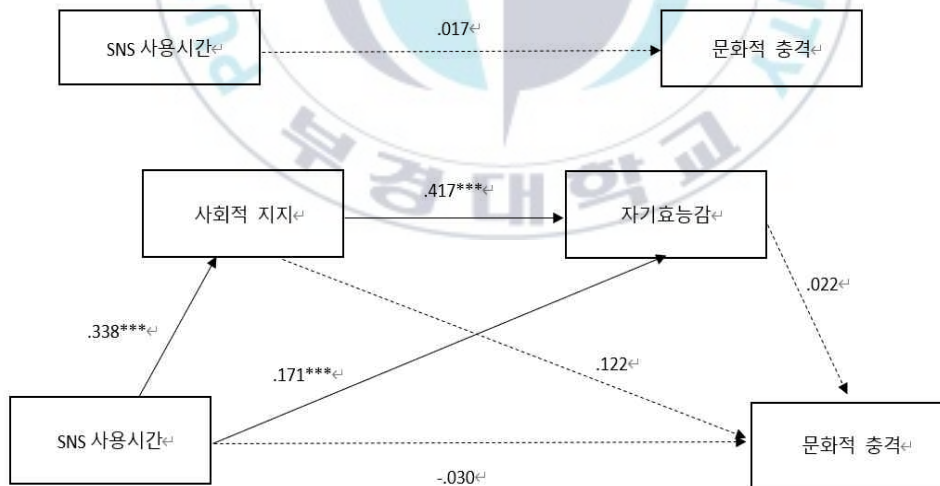
단순매개효과 검증 결과 SNS 사용시간이 사회적 지지를 경유하여 문화적 충격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04, CI[-.027~.036]).

또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문화적 충격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04, CI[-.027~.036]).

이중매개효과의 크기 검증 결과 SNS 사용시간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문화적 충격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03, CI[-.020~.026]).

<표10> SNS 사용시간과 문화적 충격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		매개효과 검증				
		Effect	S.E.	LLCL	ULCL	p
총 효과	직접효과 + 간접효과	.017	.041	-.068	.095	.767
직접 효과	SNS 사용시간 → 문화적 충격	-.030	.052	-.137	.071	.539
간접 효과	SNS 사용시간 → 사회적 지지 → 문화적 충격	.040	.030	-.012	.106	.112
	SNS 사용시간 → 자기효능감 → 문화적 충격	.004	.015	-.027	.036	.758
	SNS 사용시간→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문화적 충격	.003	.012	-.020	.026	.769
	총 간접효과	.046	.031	-.012	.114	.113



<그림11>문화적 충격의 다중매개효과의 경로분석

5. 연구문제의 검증요약

<표11> 연구문제의 검증요약

연구문제		검증
1-1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1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2-2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2-3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3-1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3-2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3-3	중국 유학생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4-1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4-2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4-3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에 영향을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V. 결론 및 논의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고향을 떠난 유학생들의 SNS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출격에 미치는 영향, 또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설문지에 응한 2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로 총 12일간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6.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문화적 충격($\beta = -.050$)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각된 차별감($\beta = -.300$) 향수병($\beta = -.362$)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NS의 사용시간이 높을수록 자각된 차별감과 향수병 낮아지는 부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는 김옥련, 왕설(2013)의 주장 일치하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어려운 환경에서 유학생들은 지역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그들은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는데 있어 미디어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SNS는 언어, 시간,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유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는 풍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자각된 차별감과 향수병에 완충적 적용을 할 수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SNS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감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조절작용을 할 수 있다. 문화적 충격의 결과가 유의하지 않는 이유는 유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많은 생활경험을 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해는 많을수록 좋으며, 영화 책 등을 통해서도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현지 친구들을 많이 만나 소통한다.

둘째, SNS 사용시간이 사회적 지지($\beta=.507$), 자기효능감($\beta=.253$)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주목하여 유학생들이 SNS 이용을 통해 모국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얻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해왔다(이홍직, 2011;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 2013; 문신일, 료가, 이현주, 김기태, 2021).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지호, 윤천성, 2019)가 모바일 서비스 지배는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였다. 이러한 논리로 SNS 사용시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 주변지인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자기효능감 증대시킴으로써 SNS 사용시간 정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기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을 더욱 높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자각된 차별감($\beta=-.418$)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각된 차별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성공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즉 의미 있는 타자 지지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차별감 문제들을 해결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있는 대학의 재학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준다는 Poyrazli, Kavanaugh, et al(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Jin xianmei(2019)의 연구에서 SNS 이용은 중국인들이 제공해주는 사회적 지지와 한국인들의 제공해주는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한국인들이 제공해주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즉,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은 자각된 차별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가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SNS 사용시간이 향수병($\beta = -.142$), 문화적 충격($\beta = .132$)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이 향수는 같은 중국 출신 친구, 한국 친구들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어도 해소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며, 문화적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의 해결에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지 못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넷째,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자각된 차별감($\beta = -.149$), 향수병($\beta = -.228$)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과 자각된 차별감과 향수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최윤희(2015)의 연구에서 스마트기기 대화형 SNS 사용 정도가 고령자 우울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는 결과에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학업 및 진로 스트레

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에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힌 이숙정과 유지현(200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즉,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은 자각된 차별감과 향수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 충격($\beta=.02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다섯째, SNS 사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학생들을 사회적 지지를 많이 가지며,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많이 가질수록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자기효능감이 지각이 높을수록 자각된 차별감과 향수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 유학생들의 SNS 사용시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순차적인 매개를 통해 자각된 차별감과 향수병을 약화시키는 이중 매개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SNS 사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적·실천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지금까지 본 연구를 진행하며 나타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연구 결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재한 중국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일반화 실현 가능성을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SNS 활용에서는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이용 요인, 주로 이용되는 SNS 등 다양한 SNS의 정보를 수집하면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SNS와 비교했을 때 일상 이용 빈도에 더 초점을 맞추고 SNS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빈도, 사용 시간, 기계와 다른 수집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문화계발효과이론의 관점에서, SNS의 사용 자체가 개인에게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는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이후의 연구들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 SNS,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종합적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SNS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기여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S., & Messick, S.(1974). Social competency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82-293.
- Antonucci, T. C. & Jackson, J. S.(1987). "Social support, interpersonal efficacy, and health: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Handbook of clinical gerontology*. edited by L. L. Carstensen & B. A. Edelstein. New York: Pergamon Press, : 291-311.
- Ball-Rokeach, S. J . & De Fleur, M.(1985) . The origins of individual media-system dependency: A sociological frame work. *Communication Research*, 12(4), 485-510.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ndura, A.(1982). Self-efficac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New York: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Bandura, A.(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김의철(역). 서울: 교육과학사.
- Berry, J. W., & Kim, U.(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Immigration Review*, 21, 491-511.
- Boyd, D., & Ellison, N. B.(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 Bryant, J., & Zillmann, D.(2002). *Media effec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nd ed. (J. Bryant & D. Zillmann ed.)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Caprara, G. V., & Steca, P. (2005). Affective and Social Self-Regulatory 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ositive Thinking and Happiness. *German Journal of Psychology*, 10(4), 250-300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and McKay, G. (1984),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New Jersey: Hillsdale.
- E. S. Choi.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Maste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Eden, D. & Kinnar, J. (1991). Modeling Galatea: Boosting self-efficacy to increase volunteer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6): 770-780
- Ellison, N.,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 - 1168.
- A. G. Rice, D. P. Fitz Gerald, T. J. Whaley & C. L. Gibbs. (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 separation-individual,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63-474.
- G. S. Kim & J. I. Hwang.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China.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9), 1-25.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o. 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1), 10-29.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ivation process. In Bryant, J., & Zillman, D. (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 17-4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erbner, G., Gross, L., Morgan, M., Signorielli, N., & Shanahan J. (2002). Growing up with TV: Cultivation processes. In Bryant, J., & Zillman, D.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 43-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ist, M. E.(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 472-85.
- Gist, M. E., & Mitchell, T. R.(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2), 183-211
- GWJ(2019). Social GlobalWebIndex’s flagship report on the latest trends in social media.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 J. H. Lee.(2011). Determinant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s and Soci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9(2), 183-194.
- J. T. Gullahorn.(1963), J. E. Gullahorn. An Extension of the U-curv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19(3).
- J. W. Berry.(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A. Padilla. Acculturation: Theory, Model and Some New Findings.Boulder, Co:Westview Press.
- J. W. Yu.(2013). Accultur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34, 245-260.
- Johnson, J. R., & Sandhu, D. S.(2007). Isolation, adjustment, and acculturation issu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vention strategies for counselors. In H.D. Singaravelu & M. Pope (Eds.), A handbook for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13-36),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 G. Rice, D. P. Fitz Gerald, T. J. Whaley & C. L. Gibbs.(1995).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l,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463-474.
- K. Oberg.(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7(4).
- Kang, J., Choi, M. Y., Kang, S., Kwon, H. N., Wen, H., Lee, C. H., ... & Park, S. (2008). Application of a ¹H nuclear magnetic resonance

- (NMR) metabolomics approach combined with orthogonal projections to latent structure-discriminant analysis as an efficient tool for discriminating between Korean and Chinese herbal medicine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56(24), 11589-11595.
- Kim, Y.Y.(2001) *Becoming Intercultural: An Integrative Theory of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Sage, Thousand Oaks.
- Kim, H., LaRose, R., & Peng, W.(2009). Lonelinessasthecauseand the effectofproblematic internetuse: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well-being.CyberPsychology & Behavior,12,451-455.
- Litt, M. D.(1976). Self-efficacy and perceived control: cognitive mediators of pain tolerance. *J 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 sychology*. 54(1), 149-160.
- Martins, N., & Harrison, K.(2011). Racial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between children's television use and self-esteem: A longitudinal panelstudy. *Communication Research*, 39(3), 338-357
- Miranda, A. O. & Matheny, K. B.(2000). "Socio-psychologic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Latino adul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4), 306-317.
- Misra, R. & Castillo, L. G.(2004). "Academic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Comparison of American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1, 132-148.
- Parks,M.R.,& Floyd,K.(1996).Making friends in cyberspace.*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1(4),0-0.
- Pederson, P. B.(1991). "Counseli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 Counseling Psychologists, 19, 10-58.
- Peter S. Adler.(1975), The Transition Experience: An Alternative View of Culture Shock.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15(4).
- Poyazli, S., Arbona, C., Nora, A., McPherson, R., & Pisecco, S. (2002).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5), 632-642.
- Poyrazli, S., Kavanaugh, P.R., Baker, A. and Al-Timimi, N. (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73-82.
- Procidano, M. & Heller, K.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1). 1-24
- R.Redfield, R. Linton, M. J. Herskovits.(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 Rau P. L. P., Gao, Q., & Ding (2008).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timacy and lurking in online social network servi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6), 2757-2770.
- S. Lysgaard.(195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Science Bulletin*,, (7).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charrer, E. & Blackburn, G.(2017). Is reality TV a bad girls club?

television use, docusoap reality television viewing, and the cultivation of the approval of aggress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5(1), 235-257.

- Scheier, L. M., Botvin, G. J., Griffin, K. W., & Diaz, T. (1999). Social Skills, Competence, and Drug Refusal Efficacy as Predictors of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Drug Education*, 29(3), 251-279.
- Seo, M. S., Park, K. S., Park, H. M., & Park H. O. (2013). A study on health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nopause*, 19(2), 112-121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 Sin, S. C. J., & Kim, K. S.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The informational value of social networking si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2), 107-116.
- Smiljanic, I. (2017). The Role of Attachment, Travel Experiences and English Proficiency in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7(2), 188-203.
- Sullivan, C. & Kashubeck-West, S. (2015), The Interplay of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Mod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5(1), 1-11.
- Sullivan, Christopher; Kashubeck-West, Susan (2015) The Interplay of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Mod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v5 n1 p1-11.

- Tartakovsky, E.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acculturative stress and homesickness: High-school adolescents immigrating from Russia and Ukraine to Israel without par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6), 485-494.
- Tichon, J.G., & Shapiro, M. (2003). The process of sharing social support in cyberspace. *Cyber Psychology & Behavior*, 6(2), 161-170.
- Walker, D. (1999). The media's role in immigrant adaptation: How first-year Haitians in Miami use the media?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Monographs*, 1(3), 157-196.
- Walther, J.B., & Boyd, S. (2002). Attraction to Computer-Mediated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ociety: Audience adoption and uses*, 153-188.
- Wheeler, V. A., & Ladd, G. W. (1982). Asses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Development Psychology*, 18, 795-805.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 641.
- Williams,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 641.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and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Zimet, G. D., Powell, S. S., Farley, G. K., Werkman, S., & Berkoff, K.A.

- (199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610-617.
- 강현욱(2013) 대학생의 SNS중독성향과 사회적지지, 외로움, 건강지각, 대인관계의 관계와 신체활동을 통한 치료 레크리에이션 적용, <한국체육과학회지 >, 22(1): 121-133.
- 강현욱, 김지태(2009). 노인의 지각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3(3), 57-68.
- 권비송(2017). "대학생의 SNS 사용시간과 열등감의 관계에서 사회비교경험의 매개적 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길귀숙(2003) 노인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김근아(200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10). 스마트 폰에서의 SNS 사용이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환(2011). 매개된 감정: SNS와 우리 시대의 감정구조. *기호학연구*, 31, 9-35.
- 김승경, 양계민(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1), 147-176.
- 김엄권(2012). 서비스 기업의 윤리경영과 조직시민행동 및 신뢰와의 관계. *서비스산업연구*, 9(2), 19-31.
- 김옥련 왕설(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SNS이용에 관한 연구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4), 377-401.

- 김용찬 외(2012).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공유행위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3),28-50
- 김은경(2016).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작용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어성연(2015) 서울시 소재 사립대학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과 학업적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로모텔검증.<한국교육문제연구>33(3),93-116
- 김진영(2003) .미디어 의존 이론 연구: 미국 유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민족 정체성, 미디어 의존적, 그리고 인지적, 행동적 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3(2) 권, 119 - 154.
- 김태동(2009). "脫北大學生의 大學生活適應에 影響을 주는 要因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서울
- 두흔, 박재황(2013). 중국인 유학생의 Glasser 내·외부통제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 생활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4(4), 2067-2083.
- 류자위(2020). 자기결정성, 사회비교,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신일 료가 이현주 김기태(2021). 이용 동기와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에 SNS 미치는 영향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 722-732
- 박순희(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29,125-146
- 박유진, 김재휘(2005).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티 몰입과

- 동일시 및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13-25.
- 박은경(2011)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현
대사 <회와 다문화>, 1(2), 113-139.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박지은(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 서동미(2009). 자기효능감 수준과 성격 6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우중·원옥연·홍진원(2010). SNS 웹 사이트의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산업혁신연구. 26(1), 99-132.
- 성가희(2011). SNS가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
구: Social shopping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소정(202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충청남도
- 쉬샤오핑과 쉬창갑(2011) 중국인 유학생들의 SNS 활용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4(2), 1149-1167
- 신민정, 편하형, 김현정, 문지현(2019).대학생 SNS 사용시간에 따른
대인관계, 신체상,학업성취도,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1, pp.257-264

- 신혜정·서영석(2006).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 중, 고)에 따른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7.1 :117-30.
- 심승원(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정옥(2008). “뮤직비디오 이용이 청소년의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계발효과이론의적용을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19 권단일호, pp.119-154.
- 안선정, 이현철, 임지영(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양혜승, 김진희, 서미혜(2012). 페이스북은 우리의 관계를 윤택하게 하는가? 한국언론학보, 56(5), 270-297.
- 오가실, 오경옥, 이숙자, 김정아, 정추자, 김혜령, 전화연, 강정희(2008). 한국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8(6), 881-890.
- 오승석(2010).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동기와 충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원옥(2005). 인터넷 기대와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간호학회지, 19(2), 339-348.
- 오윤경(2012).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매 나미수·(201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1), 77-98.
- 울로(2011). 소셜네트워크(SNS)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연구 : 싸이월드와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상(2018). “언론인 노후준비와 사회적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 이규은, 염영희, 장혜경(2011).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3), 514-523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상훈(2014). 대학교수의 문제발견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숙(2005).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가상공간에서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범 김동우(200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1권 , 47~79.
- 이숙정,유지현(2008).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교육심리연구,22(3),589-607.
- 이채식(2005).청소년 리더십기술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숙(2002), “문화간 불확실성에 따른 교민들의 자국방송 시청 동기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0권, 제2호 pp.152-186,
- 이호영 김희연 오주현 배영(2012a),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관계 형성 메커니즘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13.
- 이홍재, 최문형, 박미경(2012). SNS 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사용자 인지요인이 SNS 재사 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29(3): 145-167.
- 이홍직(2011),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스트레스

- 연구, 19(3), 183-194.
- 임지혜, 최지혜(2009).,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스트레스 연구, 제19권, 제2호, pp.183-206,
- 임창희(2008). “부정적 감정성향과 집단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개인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경영연구」 23.1 : 75-100.
- 장권량(2009).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및 정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진, 임은주, 최주형, 김다빈, 박은아(2019). 20대의 SNS 사용이 명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 비교 경향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69-369.
- 정의진, 김혜원, 박은지, 성채영, 이하늘, 정진주, 조수진, 최나운(2021). 코로나19 이후 SNS를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이 20대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SNS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69-269.
- 정지호, 윤천성(2019). 모바일 메신저의 감정반응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몰입을 통해 이용 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 20(9): 1817-1829.
- 정혜선(2015).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7), 4768-4776.
- 조강혜(2009). 조직원의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2013).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83-797.
- 최윤희(2015). 스마트 기기 대화형 SNS 사용이 고령자 우울에 미치는 영

- 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최은정(2012). SNS 의 불이 꺼지고 있는가?: SNS 의 지속 이용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3(2): 229-253.
- 최은진, 염우성, 이선우, 김솔, 이청아, 김주환(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 행태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12(1), 911-916.
- 최태일(2001).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2018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예슬, 김유정(2013). SNS 이용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교환요인, 지각된 가치와 이용자 충성도간의 구조적 관계.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3(3): 89-110.
- 홍경임. “직장인의 행복,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4.
- 홍지은(2012). 고등학생의 sns이용행태가 자아존중감과 공격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선(2008). 소셜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새로운 진화. 서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연구센터.
- 황지인(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후지염(2014).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IN XIANMEI(2019).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SNS이용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 주는 요인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울.

<부 록>

SNS 사용시간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제한 중국 유학생의 SNS(SocialNetwork Service)사용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며,성적에
영향력을 절대 미치지 않으며,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지루하
고 힘들시더라도 마지막 문항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
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연구에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심에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년 4 월

부경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연 구 자 : DING MEIJUN

지도교수 : 오창호

혹시 본 연구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DING MEIJUN(E-mail:mmmjun@naver.com)

1.귀하는 한국에 계신 중국 유학생입니까?

Yes ② No

귀하의 하루 평균 SNS사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30분미만 ② 30분 이상~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능력을 믿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크 렷 다
1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함께 할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감정에 관해 염려해 주는 내 인생의 특별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 우 크 렷 다	그 런 편 이 다	보 통 이 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많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새로운 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람들은 나에 대한 편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국에서 기회가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한국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동포들은 한국에서 차별 대우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가 온 곳과 그곳 사람들을 그리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적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한국에서 공평한 대우 받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곳에 온 것이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성 별

①남자 ②여자

나 이

①20세 이하 ②20세-25세 ③25세-30세 ④30세 이상

한국어 등급

①3급 이하 ②3급 ③4급 ④5급 ⑤6급

유학 형태

①어학당 ②학사 ③석사 ④박사

한국 거주 시간

①1년 이하 ③ 1년~2년 ④ 2년~5년 ⑤ 5년 이상

<국문 초록>

제한 중국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MEIJUN DING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요약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소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고향을 떠난 유학생들의 SNS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학생의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 문화적 출격에 미치는 영향, 또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여 설문지에 응한 2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2일까지로 총 12일간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6.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학생의 SNS사용시간,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간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학생의 SNS사용시간과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은 서로 부(-)적상관을 보였고,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SNS 사용시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SNS 사용시간이 자각된 차별감, 향수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면, SNS 사용이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향상과 SNS상의 관계에서 도 정서적 지지를 인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NS를 이용한 대학생의 문화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가 SNS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 및 보충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SNS의 순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